

[ 예술상을 점검한다 ] - 음악

## 국내 '음악상'의 열악한 환경

전정입  
충남대학교 교수  
음악평론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상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났으면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 누구에게 음악상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공연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 절차에 의해 상이 수여될 때, 그 상은 권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음악문화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 음악상의 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2004년 처음 실시한 올해의 예술상, 올해의 예술축제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심사의 절차 문제나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이러저러쿵 잡음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들만을 모아 예술축제까지 성공리에 마친 이후에는 그러한 잡음들이 그런대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상 전반을 되짚어보는 기회도 갖게 되었으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올해의 예술상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음악계에 있어서 '음악상'이라는 것은 매우 드물다. 아니,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따져 들어가 보면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연주자 개인에 대한 상으로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신인들의 등용문인 콩쿠르는 붓물을 이룬다. 언론사, 음악단체, 학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콩쿠르를 유치하고 있고, 고액의 상금을 걸어 놓은 국제 콩쿠르도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신인들을 등용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반면에, 오늘의 음악계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공연이나 음

악가들에 대한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빈약한 것이 우리 음악계의 현실이다. 공연 현장의 피드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찌되었든 참 기이한 현상이다.

현재 우리 음악계에서 수여되고 있는 음악상을 수여단체별로 그룹 지어보면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음악단체가 주최하는 것, 둘째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것, 셋째가 기업체나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것, 넷째가 문화단체에서 주최하는 것 등이다.

첫 번째로 음악단체가 수여하는 음악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한국음악협회에서 수여하는 '한국음악상'이 있다. 대상, 발전상, 특별상, 해외활동부문상, 지회부문상, 장한신인상 등으로 광범위하게 수여되는 이 상은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자나 음악단체장, 지회장 등도 수상의 대상이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사)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에서는 별도로 작곡가 흥난파를 기리는 '난파음악상'을 제정하여 매년 가장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인 연주자 1인을 선별하여 수상하고 있다.

음악단체들 중에서 특히 평론가들로 구성된 단

체들이 음악상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음악상', '한국음악비평가협회 음악상', '6인 비평가 그룹이 선정하는 오늘의 음악가상' 등이 그것이다. 한국음악평론가협회와 한국음악비평가협회에서는 연주자와 기획자 등을 총망라해 한 해 동안 음악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을 대상으로 수상을 하고 있으며, 6인 비평가 그룹은 주로 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상을 수여하고 그들에게 연주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음악 장르별로 음악상이 수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작곡가회에서는 작곡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곡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부 및 지방단체가 수여하는 음악상 중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매년 문화,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 대중예술 각 부문별 1인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2005년에 제37회를 맞는 권위 있는 상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외에도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만 20세에서 만 40세 사이의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상이라는 명칭하에 문화예술인을 수상하고 있는데, 매년 예술 장르의 구분 없이 문화상이 수상되고 있어, 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상을 정례적인 음악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 기업체에서 수여하는 음악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금호문화재단이 수여하는 '금호음악인상'이 있다.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음악 활동을 보인 젊은 음악인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2004년도에 제1회 수상자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금호음악스승상이 새롭게 제정되어 금호음악인상을 수상한 연주가의 스승에게도 상을 수여하는 매우 획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잡지사인 음악저널에서 주최하는 '신인음악상'도 있다.

네 번째로 문화단체에서 주최하는 음악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상'이다. 대부분의 음악상들이 음악가나 기획자, 즉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수상을 하는 반면에 이 상은 '작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이전의 음악상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음악에서의 '작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도 올해의 예술상 선정과 관련해 도출된 문제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에서 수상하는 '한국예술실연자상'이 있는데, 그중에 음악 부문이 있어 매년 활발한 활동을 한 연주자 1인에게 상이 주어진다.

### 음악상의 중요성

하나의 상을 제정해서 수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권위 있는 상이 제정되어 공정한 과정에 의해 수여될 때, 그 상이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계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음악활동을 영위하는 음악단체들, 음악인들이 대다수이다. 막대한 제작비용이 드는 오페라 공연의 경우, 한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민간오페라단장들은 후원금 모금에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넣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작곡 분야의 경우에도, 우리 음악계에는 아직도 신작을 위촉해서 작곡료를 지불하고 연주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작곡가들은 힘들게 작품을 내놓아도 작곡활동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연주계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 적을 두지 않은 순수한 '연주가' 혹은 '성악가' 라는 직업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음악활동을 영위하는 음악인들에게 '음악상'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상 하나를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상을 수상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자신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수상자를 통해 우리 음악계에 바람직한 음악가의 모습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다. 올바른 '음악상' 하나가 공정한 음악계, 공정한 음악인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음악상이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악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함은 물론이다. 현행의 음악상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음악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음악상 수여 과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올해의 예술상' 을 중심으로 지적해 보고자 한다.

### 음악상의 지역 편중화 현상

2004년도 올해의 예술상 대상자 추천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음악계 종사자들의 추천, 전문위원들의 추천, 일반 청중들의 추천, 공연단체의 자체적 추천 등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올해의 예술상을 선정함에 있어 원천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공연들이 다수 있었음은 유감이다.

2004년도 『문예연감』에 의하면 2003년도 한 해 동안 양악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총 4,834회이다. 이중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단체의 연주회를 제외한다 해도 총 4,617회의 공연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다. 1년간 개최된 이 많은 양악 공연 중 음악계 종사자들의 추천과 전문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리스트에 올랐던 연주회의 수는 100여 개 안팎이었다. 추천된 공연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차례에 걸친 심의를 벌였지만, 애초에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던 수많은 좋은 공연들은 거론의 여지도 없이 대상에서 탈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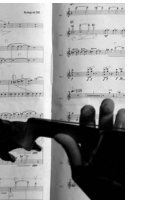


올해의 예술상(음악) 최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작곡가 이강율의 'Rainy Day', 연주 장면

올해의 예술상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줄곧 뇌리에 떠오른 것이 '서울 편중화 현상' 이었다. 필자 자신도 서울에 거주하였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을 떠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심의의 모든 초점이 서울에서 개최된 공연으로만 한정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 까지도 서울 편중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처음 심의대상 공연을 추천 받을 때 전국에 걸친 '전문위원' 들에게 추천을 의뢰했지만, 과연 서울 이외 지역의 음악인들이 전체 전문위원 중 몇 퍼센트나 참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혹 지방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창설한 '올해의 예술상' 은 매우 획기적인 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상이 활발한 음악활동을 한 음악인이나 음악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늘의 예술상은 구체적인 '작품' 혹은 '공연'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에서 좋은 공연을 추천했다고 해도, 단 한 사람의 심의위원만이 추천을 했을 경우 1차 심의 대상에 오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천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1차, 2차 심의를 담당했던 '심의위원' 대부분이 서울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음악인들이라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어떤 심의위원이 이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의 공연단체를 지지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서울에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들은 지방의 음악인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수상작은 서울 지역의 공연으로만 한정될 것이라는 결과는 쉽게 예견된다.

이러한 서울 편중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선' 을 통한 심의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 최우수 공연들을 선정하면, 그 공연들을 서로 비교하여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서울 지역의 공연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기회의 균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음악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음악상 수상자 대부분은 서울을 근거지로 연주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지방 어느 구석에 사는 평생을 자신의 음악활동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음악인에게도 권위 있는 음악상이 수여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지방 문화의 특성이 드러난 완성도 있는 공연을 발굴해 내어 수상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우리의 음

악문화는 상당히 바뀌어질 것이다.

### 작품인가? 공연인가?

현재 우리 음악계에서 수여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상은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물론 음악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므로, 모든 음악상이 결국 음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굳이 음악상의 대상을 음악인으로 할 것인지, 음악작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으로 할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 누구' 에게 음악상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공연을 한 누구' 에게 음악상이 주어질 경우 수상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화제에서는 감독상이나 주연배우상을 수여할 경우 '어떤 영화' 속에서의 '누구' 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창설한 '올해의 예술상' 은 매우 획기적인 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악상이 활발한 음악활동을 한 음악인이나 음악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늘의 예술상은 구체적인 '작품' 혹은 '공연'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의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상으로 인해 개별적인 공연을 보다 완성도 있게 올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공연문화가 훨씬 더 성숙해지는 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의 예술상' 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 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많은 혼돈이 발생한다. 타 장르에 있어

서는 이 명칭이 별 문제 없이 사용된다. 문학에서의 작품은 개별적인 작품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한 해의 출판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한 개를 골라 시상할 하면 될 것이다. 수상작의 공연 방식은 수상 이후에 결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 미술의 경우에는 하나의 미술작품이 아닌 전시회 자체에 이 상이 주어졌다. 연극이나 무용의 경우에는 작품과 공연 자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작품과 공연이 혼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에는 '오늘의 예술상'의 대상을 '개별 음악작품'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 '공연'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수상의 방향이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다. 대상을 개별 음악작품으로 볼 경우에, 이 상은 창작 분야에만 주어지게 될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수상의 대상을 '공연'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작품'과 '공연'이 계속 혼동된 2004년도 '오늘의 예술상'의 시행착오를 벗어나기 힘들다.

'올해의 예술상'의 대상을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혹은 '공연'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개별적인 음악작품'이 아닌 '공연'으로 수상의 대상을 좁혀 명확하게 한정 지었으면 한다. 창작곡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작곡가의 작품 여러 개를 묶어 개인 작곡발표회를 한 경우에만 심의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대상이 '작품'이나 '공



「Rainy Day」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장형준 씨

연'이나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여러 작곡가의 창작곡이 함께 뒤섞여 연주된 경우에는 그 공연 전체를 심의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음악상이든 그것이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작품을 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이외의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공연을 한 누구'에게로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오늘의 예술상'은 처음의 의도대로 '좋은 공연'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으로 지속하면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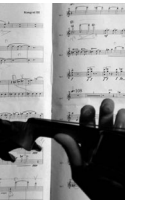
### 심의위원 선정에 따른 문제

"누구를 시상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누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어떤 음악상이든지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연 현장에 많이 참여하는 음악인을 위주로 심의위원이 선발되었으면 한다. 음악인을 수상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공연물을 본 후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간의 활동상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토론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연 현장을 잘 아는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올해의 예술상'의 경우에는 현장비디오와 CD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무대예술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 실제 공연에서의 완성도 및 감동이 비디오나 음반에 담겨졌을 때는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매체를 통한 평가는 제한을 가지기 마련이다. 물론 본선에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공연 모두를 직접 관람한 심의위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자주 찾는 심의위원이라면 매체를 통한 평가가 갖는 제한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장르의 편중 문제도

'올해의 예술상'의 대상을 '예술인'이 아닌 '예술작품' 혹은 '공연'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개별적인 음악작품'이 아닌 '공연'으로 수상의 대상을 좁혀 명확하게 한정 지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상이 '작품'이나 '공연'이나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장르의 심의 위원들이 많느냐에 따라 예술상 수상작 선정문제가 충분히 좌우될 수 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 높기 때문이다. 2004년도 '올해의 예술상'의 경우에도 심의위원들의 전공이 '작곡' 분야에 치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음악 분야 최우수 예술상이 창작곡에 주어지게 된 것이 이 사실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인력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

### 국공립단체와 사설단체의 구별에 따른 문제

2004년도 '오늘의 예술상' 선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은 과연 국공립단체의 공연을 예술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주최측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원 단체가 아닌 국공립단체의 공연은 심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고, 심의위원들은 국공립단체의 공연이라 할지라도 공연이 훌륭하다면 상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은 주최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모든 국공립단체의 공연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국공립단체의 공연과 사설단체의 공연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국공립단체는 애초부터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공연을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제작하는 사설단체보다 출발 시부터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 따라서 두 단체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설단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상이 국공립단체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에 덧붙여, 한 나라의 공연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공연은 결국 국공립단체가 나설 때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예술이라는 장르가 재정적 자립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공립단체의 공연과 관련된 음악상도 새롭게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한 상을 통해서 국공립단체들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 보다 완성도 있는 공연의 제작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 음악계의 수준도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도가 시작되었다. 올해에도 많은 음악인들이 수많은 공연을 펼칠 것이고, 누군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없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상 수상자들이 발표된다. 바라기는, 음악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상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났으면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 누구에게 음악상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구체적인 공연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 절차에 의해 상이 수여될 때, 그 음악상은 권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음악문화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